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24.(화)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11월 24일(화)부터		
담당부서	의회운영전문위원	**담당자**	박대종 전문위원(044-300-7410) 김현정 주무관 (044-300-7414)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 교육청 제3회 추경 1조 2,883억원, 시청 제2회 추경 2조 3,331억원 규모 심사 -
- 예산편성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점검… 내년도 본예산 심사 연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는 제110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0일 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3일 시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각각 수정가결했다.

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468억원 대비 585억원(4.3%) 감소한 1조 2,883억원 규모로, 회계연도 마무리를 앞두고 사업별 집행 실적과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세입과 세출 각각 3건의 통계목을 예산액 증감 없이 변경하고, 나머지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사업별 예산 감액 사유 및 연내 집행 가능성 ▲안정적인 교원 수급 관리 ▲장애인 의무고용 및 일자리 지원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의 사전검토 강화 ▲고교학점제 운영 및 학생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23일에는 시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시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2,931억원 대비 400억원(1.7%) 증가한 2조 3,331억원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 법정 지출 등 필수 재정 수요와 사업별 집행잔액 등이 반영됐다.

예결특위는 세입예산의 통계목과 세출예산의 일부 재원을 정정하고, 자동 집하 시설 민간위탁금 1억 4,255만원을 감액해 도로조명 보수 및 설치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는 등 전체 예산 규모의 변동 없이 수정 가결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949억원 규모로 원안가결했다.

위원들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청년 주거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청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축사 악취 저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첨단 의료장비 도입과 연계한 전문 의료진 확보, 지역 대학과 연계한 학생 진로교육 기회 확대, 고립·은둔 청년의 적극적인 발굴과 맞춤형 지원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박란희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추경 심사에서 확인된 사업별 집행 실적과 예산 조정 사유 등을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